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가능성

BoA,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 석유공사는 80달러대 수준 예상

2011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Bloomberg통신에 따르면, BoA Merrill Lynch는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2011년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시스코 브랜치 Merrill Lynch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 빛 상환가격 하락이나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월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는 11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 경질유)가 전일대비 1.44달러 내린 배럴당 81.2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2011년 국제유가가 80달러대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10월18일 예측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18>